

국 어

해설위원: 기미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 연도 | 유형 | 문법/규범 | 비문학/독해 | 문학 | 어휘/한자 |
|-------|----|-------|--------|-------|-------|
| 2018년 | | 9 | 3(↓1) | 5(↑2) | 3(↓1) |
| 2017년 | | 9 | 4 | 3 | 4 |

2018 서울시 9급 시험은 작년 같은 날 시행되었던 서울시 시험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지난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비해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제 유형별 출제비중은 문법/규범은 9문제로 동일하였으며, 비문학/독해는 1문제가 줄어들었고 문학은 2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어휘/한자 문제는 1문제가 줄어들어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속담, 한자성어, 한자어 나이)이 반복 출제되어, 어휘/한자 문제로 인한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와 시험 이를 전에 다룬 속담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어의 경우 대다수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되었으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므로 그동안 기출문제를 충실히 풀고 기출 변형 문제풀이를 통해 꾸준히 훈련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 85점 이상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격선은 예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을 통해 2011년~2017년 서울시 기출변형문제를 모두 풀었던 학생들의 경우 제5회에서 '박경리의 <토지>'를 선지로 다루었고, 종강 날 나눠 드린 참고자료 2번, 5번에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 적중하여 현대 문학사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이번 서울시 9급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기출 변형 문제로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 및 문학의 경우에는 9급뿐만 아니라 7급 문제까지 문제 유형별로 나누어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고어와 한자로 해석이 어려운 고전시가들은 매일 2~3문제씩 풀고 해당 작품에 대한 현대어 풀이 및 분석 내용을 교재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평소에 미리 접해두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그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담하게 2019년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4.
기미진 올림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vstCC6g

1.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씹싸름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주책이다, 걸음음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7회 6번 / 제9회 5번

출제 영역 // 표준어 규정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등물, 남사스럽다, 씹싸름하다, 복숭아뼈'는 '목물, 남우세스럽다, 씹싸래하다, 복사뼈'와 같은 뜻을 가진 2011년 추가 복수 표준어입니다.
- ② [O]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걸음음'은 '까다롭다, 거방지다, 건음음'과 뜻이나 어감이 다른 별도의 표준어로 2016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주책이다'는 '주책없다'와 같은 뜻을 가진 추가 표준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③ [O] '찰지다'는 '차지다'와 같은 뜻을 가진 2015년 추가 복수 표준어입니다. 또한 같은 해에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는 '잎사귀, 가오리연, 푸르르다'와 뜻이나 어감이 다른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 ④ [X] '덩쿨'은 비표준어이며, '닝쿨'과 '덩굴'이 표준어입니다. '개발새발'은 '괴발개발'과 같은 뜻을 가진 2011년 추가 복수 표준어입니다. '이쁘다, 마실'은 '예쁘다, 마술(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과 같은 뜻을 가진 2015년 추가 복수 표준어입니다.

기특 플러스 2011 추가 복수 표준어

| 추가된 표준어 | 현재 표준어 |
|---------|--------|
| 간지럽하다 | 간질이다 |
| 남사스럽다 | 남우세스럽다 |
| 등물 | 목물 |
| 맨날 | 만날 |
| 못자리 | 뫼자리 |
| 복숭아뼈 | 복사뼈 |
| 세간살이 | 세간 |
| 씹싸름하다 | 씹싸래하다 |
| 토란대 | 고운대 |
| 허접스레기 | 허섭스레기 |
| 흙담 | 토담 |

2. 문장쓰기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6회 6번

출제 영역 // 어법의 올바른 사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에'와 '에게'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무정 명사에는 '에'를 사용하고 유정 명사에는 '에게'를 사용합니다. '일본'은 무정 명사이므로 '에'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X]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요구되다'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입니다. 따라서 '받아야 될 것이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해지다'를 의미하는 '요구되다'를 사용하여 '요구되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합니다. 또한 '요구되다'는 '-에/에게 요구되다'와 같은 형태로 쓰이므로 적절한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 ③ [X] '이것은 ~ 생각이 든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 것을 보여 준다' 또는 '이것은 ~ 생각을 듣게 한다' 등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④ [X] 문장 성분이 누락되었습니다. '16강 티켓(을)'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은 ~과 같이 고쳐 써야 합니다.

3. 6·25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 ① 손창섭, 『비오는 날』 ② 박경리, 『토지』
- ③ 장용학, 『요한시집』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5회 14번 / 제16회 참고 자료 5번, 6번

출제 영역 // 현대 문학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손창섭의 『비오는 날』은 6·25전쟁 직후 부산을 배경으로, 암담한 시대를 사는 불구적인 인간들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 ② [O] 박경리의 『토지』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장편 소설로, 경남 하동 평사리의 대지주 최 씨 가문의 4대에 걸친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③ [X] 장용학의 『요한시집』은 1955년 <현대문학>에 발표된 장용학의 실존주의적 경향의 소설로서 작가가 사르트르의 <구도>를 읽고 그 영향을 받아 쓴 것으로 6·25 전후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전쟁 포로인 누헤가 철조망에 목을 매고 자살하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 ④ [X]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은 6·25로 인해 흩어진 한 가족이 겪은 전쟁 당시의 상황과 현대의 서울을 병치해 등장시켜 분단의 극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4.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5회 2번

출제 영역 // 속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달도 차면 기운다'는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이므로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냅니다.
- ② [O]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봄꽃도 한때와 같은 뜻으로 '부귀영화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한때가 지나면 그만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냅니다.
- ③ [X]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는 '사람의 한평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므로 '권력의 무상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 ④ [O]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는 '꽃이라도 십일홍(十日紅)이 되면 오던 봉접도 아니 온다.'와 같은 뜻으로 '사람이 세도가 좋을 때는 늘 찾아오다가 그 처지가 보잘것없게 되면 찾아오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냅니다.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중에서

-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첫 번째 문단의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와 두 번째 문단의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를 통해 아메리카는 신세계였고, 유럽은 구세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두 번째 문단의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를 통해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두 번째 문단의 '만단족 인디언들은 ~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를 통해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X] 첫 번째 문단의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를 통해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인디언이 2000만 명가량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보기>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정작 일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① 개과불린(改過不吝)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교각살우(矯角殺牛)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220 24번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改過不吝(고칠 개, 지날 과, 아닐 불, 아낄 린)은 '허물을 고침에 인색(吝嗇)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 ② [X] 輕舉妄動(가벼운 경, 들 거, 망령될 망, 움직일 동)은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 ③ [O] 矯角殺牛(바로잡을 교, 뿔 각, 죽일 살, 소 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제시문의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어리석음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입니다.
- ④ [X] 附和雷同(붙을 부, 화할 화, 우레 뇌, 같을 동)은 '뜻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며 '양동이까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남아 한다고 하니까 분별없이 덩달아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7.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보기>

- 꽃내음[폰내음]
- 바깥일[바깥닐]
- 학력[항녁]

- ① 중화
- ② 첨가
- ③ 비음화
- ④ 유음화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음운의 변동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중화'는 '서로 다른 요소가 특정한 조건에서 변별 기능을 잃고 구별되지 아니함. 또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날', '낫', '낱', '날' 따위에 쓰인 받침소리는 모두 'ㄷ'으로 발음됩니다.
- ② [X] '첨가' 중 'ㄴ' 첨가가 '바깥일'에만 일어납니다. 'ㄴ' 첨가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노, 누]로 발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③ [O] 모두 '비음화'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비음화'란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꽃내음'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폰내음]이 된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폰내음]으로 발음됩니다. '바깥일'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바깥닐]이 된 후에 'ㄴ' 첨가가 일어나 [바깥닐]이 되고 최종적으로 비음화를 거쳐 [바깥닐]이 됩니다. '학력'은 한자어 받침 'ㄱ, ㅍ'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되므로 [항녁]이 되고 다시 'ㄴ'에 의해 비음화가 일어나 [항녁]이 됩니다.
- ④ [X] '유음화'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 단어 모두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8.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④ 그는 인지적이다. <명사>
그는 인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44 29번
출제 영역 // 품사의 통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만큼'이 관형어 뒤에 오면 의존 명사이므로 '참을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입니다. '만큼'이 체언 뒤에 오면 조사이므로 '사람만큼'의 '만큼'은 조사입니다.
- ② [O] '아니'가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낼 때는 부사이므로 '아니 분다'의 '아니'는 부사입니다. '아니'가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는 말로 쓰일 때는 감탄사이므로 '아니, 이럴 수가 ~'의 '아니'는 감탄사입니다.
- ③ [X] '백'은 '십의 열 배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수사 또는 관형사로 쓰입니다. '백을 안다'의 '백'은 조사와 결합하였으므로 수사입니다. '백 말을 한다'의 '백'은 뒤에 오는 명사 '말'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입니다.
- ④ [O]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적'이 붙은 말은 관형사·부사 또는 명사로 쓰입니다. '인지적'은 뒤에 관형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였으므로 명사입니다. '인지적 인간이다'는 뒤에 오는 명사 '인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입니다.

9.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② 4·19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현대 문학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1960년대에는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문학은 1950년대 문학과는 달리 분단의 원인과 치유 방안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면서 맹목적인 반공 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황순원, 최인훈 등이 있습니다.
- ② [O] 4·19혁명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서민층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묘사한 현실비판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경현의 '모래톱 이야기', 전광용의 '꺼삐딴 리' 등이 있습니다.
- ③ [O] 1960년대에는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참여문학과 문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④ [X] 1970~198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입니다. 민족문학론은 1960년대의 참여문학론, 민중문학론, 농민문학론 등을 거쳐 1970년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민족문학론은 1980년대 민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중문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손 자 : 할아버지. 여기 있는 ㉠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 응. 이 ㉡ 밭만 매면 돼.
손 자 : 이 ㉢ 밭 모두요
할아버지 : 왜? ㉣ 밭이 너무 넓으니

- ① ㉠ : [바슬]
- ② ㉡ : [반만]
- ③ ㉢ : [반]
- ④ ㉣ : [바치]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116 3번
출제 영역 // 모음의 발음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바들]이 올바른 발음입니다.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되었으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합니다.
- ② [O] '밭만'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반만]이 된 후, 비음화로 인해 [반만]으로 발음되므로 올바른 발음입니다.
- ③ [O] '밭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반]으로 발음되므로 올바른 발음입니다.
- ④ [O] '밭이'는 구개음화가 적용되므로 [바치]로 발음되므로 올바른 발음입니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ㅟ'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11.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폴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윤택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깊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 ① 채식주의자
- ② 식육 생산의 실상
- ③ 동물을 먹는 행위
-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글쓴이는 우리가 폭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식육 생산에 관해 알고 싶지 않고 깊어 보려 하거나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주의자는 오히려 이러한 식육 생산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의 예시이므로 <보기>의 비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O] <보기>는 식육 생산의 실상을 비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③ [O] <보기>는 동물을 먹는 행위를 비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④ [O] <보기>는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62세 - 화갑(華甲) ② 77세 - 희수(喜壽)
③ 88세 - 백수(白壽) ④ 99세 - 미수(米壽)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술변형문제풀이 제4회 9번 / 1주차 어휘·한자 자료
출제 영역 // 한자 어휘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62세를 이르는 한갑의 이듬해를 이르는 말인 ‘진갑(進甲)’입니다. ‘화갑(華甲)’은 61세를 이르는 말인 ‘환갑(還甲)’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 ② [O] 77세를 이르는 말은 ‘희수(喜壽)’입니다. 70세를 이르는 ‘희수(喜壽)’와 구별해야 합니다.
- ③ [X] 88세를 이르는 말은 ‘미수(米壽)’입니다. ‘백수(白壽)’는 아흔아홉 살을 의미합니다.
- ④ [X] 99세를 이르는 말은 ‘백수(白壽)’입니다. ‘미수(米壽)’는 여든여덟 살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 나이에 따른 호칭 및 생신 명칭 ◆

| 호칭 및 명칭 | 우리나라 나이 (표준국어대사전 기준) | 설명 |
|-----------------------------|-------------------------|---|
| 지 학 (志學) | 15세 | 15세가 되어야 학문에 뜻을 둔다는 뜻 |
| 약 관 (弱冠) | 20세 | 남자는 스무살에 관례(冠禮)를 치루어 성인이 된다는 뜻 |
| 이 립 (而立) | 30세 | 서른살쯤에 가정과 사회에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뜻 |
| 불 혹 (不惑) | 40세 | 공자가 40세가 되어서야 세상일에 미혹함이 없었다고 한테서 나온 말 |
| 지천명 (知天命) | 50세 | 원살에 드디어 천명을 알게 된다는 뜻 |
| 이 순, 육 순 (耳順, 六旬) | 60세 | 이순은 논어에서 나온 말로 나이 예순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무슨 일이든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는 뜻이다. 60세 때의 생신인 육순(六旬)이란 열(旬)이 여섯(六)이란 말이고, 육십갑자(干支六甲)를 모두 누리는 마지막 나이이다. |
| 환갑, 회갑 (還甲, 回甲) | 61세 | 61세 때의 생신으로 60갑자를 다 지내고 다시 낳은 해의 간지가 돌아왔다는 의미 |
| 진 갑 (陳·進甲) | 62세 | 62세 때의 생신으로 다시 60갑자가 펼쳐져 진행한다는 의미 |
| 고희, 칠순 종심, 희수 (古稀·七旬·從心·稀壽) | 70세 | 70세 때의 생신이다. 두보(杜甫)의 곡강(曲江) 시에 ‘술 빚은 보통 가는 곳마다 있으니 결국 인생은 기껏 살아 본들 70 세는 옛날로부터 드물다. (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라.)’란 승구 중 고(古)자와 희(稀)자만을 써서 ‘고희(古稀)’란 단어를 만들어 70세로 대신 쓴 것이다. 또한 뜻대로 행하여도 도(道)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테서 종심이라 하였다. |

| | | |
|-----------------|------|--|
| 희 수 (喜壽) | 77세 | 77세 때의 생신이다. 오래 살아 기쁘다는 뜻. 희(喜)자를 약자로 쓰면 七十七이 되는 데서 유래되었다. |
| 팔 순 (八旬) | 80세 | 80세 때의 생신이다. 산(傘)자의 약자가 팔(八)을 위에 쓰고 십(十)을 밑에 쓰는 것에서 유래 |
| 미 수 (米壽) | 88세 | 88세 때의 생신이다. 미(米)자를 풀면 팔십팔(八十八)이 되는 것에서 유래 |
| 망 백 (望百) | 91세 | 91세가 되면 100살까지 살 것을 바라본다하여 망백 |
| 백 수 (白壽) | 99세 | 99세 때의 생신이다. 백(百, 100)에서 일(一)을 빼면(99세) 즉, 백자(白字)가 됨 |
| 상 수 (上壽) | 100세 | 사람의 수명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 左傳에는 120세를 상수로 봄 |
| 천 수·천 명 (天壽·天命) | | 병없이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면 하늘이 내려 준 나이를 다 살았다는 뜻으로 천수라 한다. |

13.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렇게 하면 되?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③ 서로 도와고 사는 게 좋다.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술변형문제풀이 제4회 4번 / 제13회 9번
출제 영역 // 주의해야 할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되’는 어간만 있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따라서 ‘되다’의 어간 ‘되’에 종결 어미 ‘어’가 결합한 ‘되어’ 또는 준말인 ‘돼’를 써야 합니다.
- ② [X] ‘-ㄹ께’는 ‘-ㄹ게’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ㄹ게’는 는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또한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 ③ [X] ‘돕다’는 ‘ㅂ’ 불규칙 용언으로서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오/우’로 바뀝니다. 그러나 자음 어미 앞에서는 그대로 ‘돕고’로 써야 합니다.
- ④ [O] ‘알다’의 어간 끝 받침 ‘ㄹ’은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으)오, -(으)ㄹ’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알다’의 어간 ‘알-’의 ‘ㄹ’ 받침은 어미 ‘ㅂ니다’ 앞에서 탈락하여 ‘압니다’로 씁니다.

1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술 변형 문제집 p.47 35번
출제 영역 // 품사의 구별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갖은’은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의 의미를 가진 관형사로서 뒤에 오는 명사 ‘고생’을 수식합니다.
- ② [X] ‘바로’는 ‘다름이 아니라 곧’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서 뒤에 오는 대명사 ‘이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 ③ [X]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 ④ [X] ‘방글방글’은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자꾸 귀엽고 보드랍게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뒤에 오는 서술어 ‘웃는다’를 수식합니다.

15.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 ④ 동해로 가는길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7회 9번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밖에' 다음에 부정적 어휘가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 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참고로 '-ㄹ'밖에'가 '다 른 수단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경우에도 붙여 씁니다.
- ② [O] '하고'가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일 때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 다. 또한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와 같이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일 때도 붙여 씁니다. 다만 동사 '하다'가 '하고'로 활용 하여 직접 인용하는 문장 뒤에 쓰여 인용하는 기능을 나타낼 때는 띄어 써야 합니다. (예: 보초는 "손들어!" 하고 크게 외쳤다.)
- ③ [X]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 다.
- ④ [X] '감'은 '은/는'에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16.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 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이형식이 "웁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 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만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리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 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 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 ① 반영론적 관점 ② 효용론적 관점
- ③ 표현론적 관점 ④ 객관론적 관점

[문제 분석]

2018 서울시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3회 12번 / 적중 Final Live 특강 17 번

출제 영역 // 문학 이해의 방법과 비평의 종류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을 현실 세계를 반영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작품과 실제 현실 세계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는 방법이다. 작품에 반 영된 세계와 대상 세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관점을 말한다.
- ② [O] '효용론적 관점'은 작품을 독자에게 미적 쾌감이나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독자가 얻는 즐거움과 교훈 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을 말한다. 제시문의 말미에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 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를 통해 효용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을 작가의 체험과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 점으로, 작품과 작가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④ [X] '객관론적 관점'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작품 자체만을 고찰하는 관점으로, 작품 의 독자적 구조와 체계에 주목하는 감상 방법을 말하며, '구조론적 관점' 또는 '절대주 의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기특 플러스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 | | |
|--------|-----------------------|---|
| 내재적 관점 | 구조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작품 자체만을 고찰하는 관점으로, 작품의 독자적 구조와 체계에 주목한다. 작품 내의 질서와 미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감상하는 관점을 말한다. 작품 속 언어의 함축적 의미나 표현법 등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관점이다. 예)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유리창은 이승과 저승의 운명적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 외재적 관점 | 표현론적 관점 | 작품을 작가의 체험과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작품과 작가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는 방법이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전기(傳記), 심리 상태 등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관점이다. 예)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한용운이 승려였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님'은 '부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 | 반영론적 관점 | 작품을 현실 세계를 반영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작품과 실제 현실 세계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는 방법이다. 작품에 반영된 세계와 대상 세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관점이다. 예)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는 일제강점하의 비극적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
| | 효용론적 관점 | 작품을 독자에게 미적 쾌감이나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독자가 얻는 즐거움과 교훈 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다. 예) 박목월의 <가장>을 읽고 독자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경우 |

17.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38 16번

출제 영역 //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주워서 버렸다'는 '줍다'와 '버리다'의 의미가 모두 살아 있으므로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입니다. 또한 두 용언 사이에 다른 요소 '어서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O] '척한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는 척하다', '-는 척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저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입니다.
- ③ [O]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입니다.
- ④ [O] '가다'는 주로 동사 뒤에서 '-어 가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입니다.

기특 플러스 본용언과 보조 용언

- **본용언:**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
 - **보조 용언:**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보조 용언이 동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동사이고, 형용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형용사이다.
- 본용언 + 보조 용언
- **자고 나서 어디로 갈 거야?**(본용언 + 보조 용언 '나다': 행동이 끝났음)
 -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본용언 + 보조 용언 '버리다': 행동이 끝났음)
 - **그녀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 버렸다.**(본용언 + 보조 용언 '버리다': 행동이 끝났음)
 - **나도 그거 한번 먹어 보자.**(본용언 + 보조 용언 '보다': 시험 삼아 함)
 -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본용언 + 보조 용언 '오다':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가 정한 기준점에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
 -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본용언 + 보조 용언 '주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

※ 본용언 + 본용언

-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본용언 '들다' + 본용언 '가다')
-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본용언 '젊다' + 본용언 '보이다')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화랑도(花郎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郎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 변태섭, 『화랑도』중에서

-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제시문에서는 '화랑도(花郎道)'와 '화랑도(花郎徒)'의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X] 글쓴이의 체험담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X]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④ [X]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9.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노라 ㉠ 三角山아 다시 보자 ㉡ 漢江水야

㉢ 故國山川을 써느고자 허라마는

時節이 하 ㉣ 殊常히나 울동 말동 허여라 - 김상헌

-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 ② ㉡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김상헌의 <가노라 삼각산아~>는 병자호란 때 경사항전을 주장했던 작가가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조국에 대한 애정과 비통한 심경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 ① [X] ㉠ '三角山'은 '인왕산'이 아니라 '북한산'의 옛 이름입니다.
- ② [O] ㉡ '한강수(漢江水)'는 '한강의 물'이란 의미로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③ [O] ㉢ '故國'의 당시 국호는 '조선'입니다.
- ④ [O] ㉣ '殊常히나'는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합니다.

[현대어 풀이]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허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동 말동 허여라

기특 작품 분석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

갈래: 평시조

주제: 우국충절, 적국에 잡혀 가는 우국지사 의 안타까운 마음

성격: 절의가, 우국가, 비분가

특징: 대구법, 대유법, 의인법 사용

20.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설 속 지명은?

<보기>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듯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빛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써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① 삼포
- ② 서울
- ③ 거제
- ④ 무진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④ [O] [보기]는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진기행>은 김승옥(金承燬)이 지은 단편 소설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려는 고립된 개인의 복잡한 심리를 내용으로 하여, 개인의 삶과 현실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의 파악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무진기행>에는 선명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로 표시되는 일상의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무진이라는 탈일상의 공간입니다. 무진은 꿈이고 서울은 현실이며, 이 두 개의 이질적인 공간은 주인공의 내면에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줄거리 요약]

서술자로 등장하는 '나'는 서른 셋의 나이로 제약회사 중역이다. 4년 전, 미망인이 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으며, 며칠 후면 그 아내와 장인의 도움으로 제약회사 전무가 될 몸이다. 그는 어머니의 묘가 있고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무진으로 잠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음악교사인 발랄한 처녀 하인숙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녀를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그는 상경을 요구하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는 갈등한다. 서울로 가겠다고 작정한 후, 그는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찢어버린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는 서울로 간다.